

경기지역 여대생이 지각한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이행 간의 관계

양남영*†, 문선영**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 신흥대학 간호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유방암의 발생빈도는 국가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에 비하여 낮은 발생률을 보이지만, 최근에는 발생률이 뚜렷이 증가하여 2001년 유방암의 비율은 전체 여성암 중 16.1%로 위암을 추월하여 첫 번째를 차지하게 되었고, 2002년에는 16.8%를 차지하여 역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석환, 2005).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발생 빈도는 4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지만, 30대 환자는 전체 유방암 환자의 19.2%를 차지하고 있고, 35세 미만의 환자는 11.3-17.3%를 차지하고 있어 서구와는 달리 젊은 연령의 유방암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강선희와 전형진, 2007).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는 서양은 전체 유방암 환자 중 0.5-2% 정도로 보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상달 등, 2001).

미국에서는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매월 유방자가검진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이미화와 최인희, 2001), 국내에서는 유방암 검진 권고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유방 자가 검진, 35세 이상의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 진찰, 40세 이상의 여성은 1-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 진찰 및 유방촬영술,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하고 있다(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2007).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때 점차

초경연령이 14세 이전으로 단축되고 있는 현 시대에서 20대 여성의 유방암 관련 경고가 충분히 강조되어야 하는 실정이지만, 유방암에 대한 주 관심 대상은 중년 여성으로 20대 여성은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유방암 관련 연구에서 배제되고 있다(이미화와 최인희, 2001; 이태정, 2007). 따라서 서양에 비해 높은 유방암 발병률을 보이며 중, 고등학교와 달리 보건 교육의 기회가 적은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과 관련된 지식, 예방 행위 및 교육 등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방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유방암의 예후를 결정하는 적절한 조기검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방암의 조기검진은 유방 촬영술(mammography), 임상적 진찰(clinical breast examination, CSE), 유방 자가검진(breast self-examination, BSE)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 이것은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데 유용하다(유근영 등, 2001). 이 중 유방암 환자의 약 90%가 자기 스스로 몸 우리를 발견하여 내원하는 점, 경제적인 부담으로 모든 여성이 쉽게 유방촬영술을 이용할 수 없는 점이 확인되어, 유방 자가검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성미혜, 2004; 최경옥, 1994; 허혜경과 박소미, 2004; Aspinall, 1991; Parviainen, 2003). 또한 유방 자가검진이 여성들의 생명 전부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유방 자가검진으로 발견되는 유방암들은 거의 1년 이내에 발견되어 다른 부위로의 전이를 막아주며 무엇보다도 여성

교신저자: 양남영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685 건양대학교 의과학과 313호

전화: 042-600-6347, 010-6312-4967 팩스: 042-545-6326 E-mail: nyyang@konyang.ac.kr

▪ 투고일 08.11.05

▪ 수정일 09.03.13

▪ 게재확정일 09.03.28

들이 건강과 well-being을 위해 가장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조홍숙, 2004; Lerner, 2002). 특히 35세 이하 젊은 여성에서 유방의 이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 주 증상도 유방 종괴가 스스로 촉지된 경우가 가장 많으며 비 촉지성 유방암이 진단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민연기 등, 2001) 젊은 여성의 유방 자가검진은 유방암 예방을 위해 그 효율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유방 자가검진의 효율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노력과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유방자가검진 실천율은 약 23-38%이었다(이영휘 등, 2004; 최종숙 등, 2001; 한미연과 정재원, 2004; Devine & Frank, 2000; Rosvold 등, 2001). 또한 여성의 유방 자가검진의 행위단계는 계획 전 단계 7.7% 계획 49%, 행동 35%, 유지 8.4%를 보였고,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16.7%뿐으로 유방자가검진 행위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허혜경과 박소미, 2004).

한편, 유방 자가검진의 실천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그 중 무엇보다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보건교육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보건교육을 통하여 지식이 증가되고, 그 영향으로 유방 자가검진 능력이 증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안혜정, 2002). 그러나 인간의 행동이 단지 외적 자극 즉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만 받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이 자기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일어나고, 결국 인간 행동의 변화는 행위자 자신이 그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일어난다(이태정, 2007; Bandura, 1986). 따라서 어떤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 즉, 자기효능감이 강할 때, 외부의 장애상황이나 용이한 상황을 잘 지각할 수 있으므로 유방 자가검진 행위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 시 개인적인 능력과 함께 행위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장애상황이나 용이한 상황 등을 고려함으로써 의도를 가지게 하여 건강증진행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안혜정, 2002). 또한 이미 선행연구에서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은 건강신념모델에서 제시된 개념 외에는 유방자가검진 이행빈도에 영향을 주는 예측인자로 확인된바 있어(김은경 등 2003; Assaf 등, 1985; Champion, 1993; Lu, 1995),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유방자가검진의 실천 즉 이행정도를

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방암의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대상에서 그동안 관심은 적었지만, 추후 점차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여대생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유방암 예방 행위로서 유방 자가검진과 관련된 지식과 자기효능감 및 이행 정도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 연구로서, 이는 여대생에게 효율적이고 이행 가능한 유방자가검진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추후 유방암 조기발견을 통한 유방암 관련 생존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대생이 지각한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 및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대생의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 정도를 파악한다.
- 2) 여대생의 유방암 관련 특성에 따른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 정도의 차이를 파악 한다.
- 3) 여대생의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여대생의 유방 자가검진의 이행에 대한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의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이 지각한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 및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연구자의 편의추출에 의해 경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직접 연구에 참

여할 것을 동의한 520명이었다. 자료 수집방법은 연구대상자가 설문지에 직접 답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자료가 부실한 21부를 제외하고, 499부를 연구 결과로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유방암과 유방 자가검진과 관련된 전반적 지식을 최경옥(1996)이 개발하고, 조홍숙(2004)이 사용한 유방 자가검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유방암 호발율 1문항, 유방암의 증상 1문항, 유방암 고위험요인 2문항, 유방촬영 시기 1문항, 유방 자가검진 시기 2문항, 유방 자가검진 방법 8문항, 몽우리 발견시 취해야 할 행동 1문항, 발생순위 1문항, 전문 치료과 1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이분식 설문으로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을 주어 총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Kuder-Richardson 은 .77로 나타났다.

2) 유방 자가검진의 자기효능감

개인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일련의 행동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태정, 2007; Bandura, 1986)을 Champion(1993)이 개발하고, 이태정(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문항별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자신 있다' 5점, '어느 정도 자신 있다' 4점, '보통이다' 3점, '어느 정도 자신 없다' 2점, '매우 자신 없다' 1점으로 총 점수의 범위는 12-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태정(200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3) 유방 자가검진의 이행정도

유방 자가검진의 실시빈도 및 실천방법에 대한 것을 김미경(1989)이 사용한 유방자가검진 이행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Likert 4점 척도의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별 '전혀 시행하지 않는다' 1점, '가끔 시행한다' 2점, '2개월에 한 번 정도 시행한다' 3점, '매달 시행한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행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

미경(1989)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유방암 관련 특성,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일반적 및 유방암 관련 특성에 따른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 정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도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고, 유방 자가검진의 이행에 대한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의 영향정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및 유방암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1.85 ± 3.83 세였고, 초경을 경험한 연령은 평균 13.67 ± 1.20 세였다. 학년은 1학년 246명(49.3%), 2학년 237명(47.5%), 3학년 16명(3.2%)이었고, 종교는 222명(44.5%)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거주형태는 458명(91.8%)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월경상태는 287명(57.5%)이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고, 269명(53.9%)이 평소 유방암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유방암에 대한 위험성은 334명(66.9%)이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였고, 401명(80.4%)이 주위에 유방암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교육은 328명(65.7%)이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고, 주로 교육을 제공받은 곳은 학교교육(16.6%),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12.2%), 가족, 이웃, 친구 등의 주변 아는 사람(2.2%) 순이었다. 유방 자가검진의 수행여부는 지난 1년간 유방 자가검진을 한 번 이상 수행한 사람은 13.6%이었다. 유방 자가검진을 수행하지 않은 이유는 '유방 자가검진 방법을 몰라서'(51.1%),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31.7%), '귀찮아서'(26.7%), '유방암에 걸릴 염려가 없어서'(21.6%)순이었다<표 1>.

표 1. 일반적 및 유방암 관련 특성 (n=499)

특성	항목	빈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연령(세)				21.85±3.83
초경연령(세)				13.67±1.20
학년	1학년	246	49.3	
	2학년	237	47.5	
	3학년	16	3.2	
종교	있다	222	44.5	
	없다	227	45.5	
거주형태	자택	458	91.8	
	하숙	9	1.8	
	자취	32	6.4	
월경상태	규칙적	287	57.5	
	불규칙적	212	42.5	
평소 유방암에 대한 생각을 해 본 경험	있다	269	53.9	
	없다	230	46.1	
유방암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는 지	있다	165	33.1	
	없다	334	66.9	
유방암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만난 경험	있다	98	19.6	
	없다	401	80.4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교육 경험	있다	171	34.3	
	없다	328	65.7	
교육을 받은 곳(*)	학교 교육	73	14.6	
	대중매체	61	12.2	
	아는 사람	11	2.2	
	의사	4	0.8	
	간호사	2	0.4	
	소책자	4	0.8	
한 번 이상 유방자가검진수행여부	있다	68	13.6	
	없다	431	86.4	
유방자가검진 수행을 하지 않는 이유(*)	방법을 몰라서	255	51.1	
	필요성을 못 느껴서	158	31.7	
	귀찮아서	133	26.7	
	유방암에 걸릴 염려가 없어서	108	21.6	
	바빠서	96	19.2	
	부끄러워서	77	15.4	
	잊어서	75	15.0	
	자신이 없어서	71	14.2	
	어려워서	65	13.0	

(*) 복수응답임

표 2.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도 (n=499)

변수	문항	정답률(%)
지식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 암 중 발생률 1위이다.	48.3
	우리나라 여성 중 유방암에 가장 잘 걸리는 나이는 40대이다.	50.5
	40세 이상의 여성은 6개월에 한 번씩 유방촬영을 해야 한다.	17.8
	유방의 크기가 큰 것은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80.8
	어머니나 언니, 여동생이 유방암에 걸린 여성은 다른 사람보다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81.4
	생리를 하는 여성은 유방자가검진을 하기 가장 좋은 때는 생리 전 일주일이다.	57.9
	자가검진은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4.5
	최근에 젖꼭지가 들어간 것은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다.	23.4
	유방을 만질 때에는 다섯 손가락 끝으로 만진다.	62.5
	유방에 몽우리가 발견되면 더 커지는지 조금 두고 본다.	53.5
	유방을 만질 때에는 한 부위에서 누르는 정도를 달리하여 세 번 만진다.	59.3
	자가 검진을 할 때는 거울 앞에서 유방을 자세히 본다.	58.1
	유방에서 몽우리를 발견될 때만 젖꼭지의 분비물을 관찰한다.	59.9
	자가검진을 할 때는 피부에 주름이 있거나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는지를 본다.	58.5
	유방을 만질 때는 한 부위에서 등글게 원을 그리면서 만진다.	65.1
	자가검진을 할 때는 겨드랑 밑도 만진다.	74.1
자가검진을 할 때는 오른쪽 유방은 오른손, 왼쪽 유방은 왼손으로 검진한다.	69.1	
유방암을 검진 치료하는 과는 외과이다.	25.9	
총 점수의 평균		8.79±3.28/18점
변수	문항	평균±표준편차/5점
자기효능감	나는 유방자가검진을 어떻게 하는 지 알고 있다.	2.18±1.20
	나는 유방자가검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1.84±1.06
	나의 유방에 몽우리가 있다면 자가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다.	2.16±1.09
	나의 유방에 달걀만한 몽우리가 있다면 자가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다.	2.61±1.26
	나의 유방에 동전 크기만한 몽우리가 있다면 자가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다.	2.36±1.14
	나의 유방에 완두콩만한 몽우리가 있다면 자가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다.	2.02±1.05
	나는 유방자가검진을 순서에 따라 할 수 있다.	2.01±1.09
	나는 유방자가검진을 할 때 적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2.13±1.15
	나는 거울을 볼 때 유방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찾아낼 수 있다.	2.08±1.05
	나는 유방자가검진 할 때 손가락의 정확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88±0.97
	나는 유방자가검진 할 때 손가락으로 유방조직의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1.90±1.00
나는 다른 여성에게 유방자가검진을 가르칠 수 있다.	1.79±1.06	
총 점수의 평균		24.97±10.46/60점
변수	문항	평균±표준편차/4점
이행	유방에 몽우리가 있는 지 만져보았다.	3.07±.99
	유방 표면에 주름살이나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 지 살펴보았다.	3.44±.88
	젖꼭지를 짜서 분비물이 나오는 지 살펴보았다.	3.60±.79
	유방의 크기를 관찰하였다.	3.11±.97
	유방이 부어있는 지 모양을 관찰하였다.	3.50±.85
	양손을 올리고 유방의 모양을 살펴보았다.	3.43±.88
	누워서 유방의 안쪽과 바깥쪽을 촉진해 보았다.	3.60±.78
총 점수의 평균		23.75±4.28/28점

2.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이행정도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으로 측정된 점수는 18점 만점에 평균 8.79±3.28점이었고, 정답률은 48.9%이었다.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어머니나 언니, 여동생이 유방암에 걸린 여성은 다른 사람보다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81.4%), ‘유방의 크기가 큰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80.8%), ‘자가 검진을 할 때는 겨드랑 밑도 만진다’(74.1%)의 순이었고,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40세 이상 여성은 6개월에 한번 씩 유방촬영술을 해야 한다’(17.8%), ‘최근에 젖꼭지가 들어간 것은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다’(23.4%), ‘유방암을 검진 치료하는 곳은 외과이다’(25.9%)의 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유방 자가검진의 자기효능감은 60점 만점에 평균 24.97±10.46점(2.08±8.75점)이었다. 문항별 ‘나의 유방에 달걀만한 몽우리가 있다면 자가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다’(2.61±1.26/5점), ‘나의 유방에 동전 크기만한 몽우리가 있다면 자가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다’(2.36±1.14/5점), ‘나는 유방 자가검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2.18±1.20/5점)의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나는 다른 여성에게 유방 자가검진을 가르칠 수 있다’(1.79±1.06/5점), ‘나는 유방 자가검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1.84±1.06/5점), ‘나는 유방 자가검진을 할 때 손

가락의 정확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1.88±.97/5점)의 순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연구대상자 중 유방 자가검진을 수행한 연구 대상자의 이행 정도는 28점으로 평균 23.75±4.28점(3.39±.61/4점)이었다. 문항별 ‘젖꼭지를 짜서 분비물이 나오는 지 살펴 보았다’(3.60±.79/4점), ‘누워서 유방의 안쪽과 바깥쪽을 촉진해 보았다’(3.60±.78/4점)가 높게 측정되었고, ‘유방에 몽우리가 있는 지 만져보았다’(3.07±.99/4점), ‘유방의 크기를 관찰하였다’(3.11±.97/4점)가 낮게 측정되었다<표 2>.

3. 유방암 관련 특성에 따른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유방암 관련 특성에 따른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이행정도는 유방암에 대한 생각(지식(t=2.576, p=.010), 자기효능감(t=6.202, p=.000), 이행정도(t=5.084, p=.000)), 유방암에 대한 위협성에 대한 느낌(지식(t=2.871, p=.004), 자기효능감(t=4.052, p=.000), 이행정도(t=4.766, p=.000)), 유방암 환자 만난 경험(지식(t=2.344, p=.019), 자기효능감(t=3.864, p=.000), 이행정도(t=2.162, p=.031)), 유방 자가검진 교육 경험(지식(t=5.865, p=.000), 자기효능감(t=11.727, p=.000), 이행정도(t=6.421, p=.000))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

표 3. 유방암 관련 특성에 따른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도의 차이 (n=499)

특성	항목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도	
		평균 ±표준편차	t(p)	평균 ±표준편차	t(p)	평균 ±표준편차	t(p)
평소 유방암에 대한 생각을 해 본 경험	있다	9.14±3.04	2.576	27.52±10.97	6.202	24.77±.26	5.084
	없다	8.37±3.51	(.010)	21.99±8.97	(.000)	22.88±4.38	(.000)
유방암에 대한 위협성을 느끼는 지	있다	9.38±3.13	2.871	27.63±10.22	4.052	24.41±3.98	4.766
	없다	8.49±3.32	(.004)	23.66±10.34	(.000)	22.42±4.56	(.000)
유방암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만난 경험	있다	9.48±2.95	2.344	28.58±10.50	3.864	23.96±4.13	2.162
	없다	8.62±3.34	(.019)	24.09±10.27	(.000)	22.92±4.81	(.031)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교육 경험	있다	9.84±2.55	5.865	32.18±10.75	11.727	24.65±3.86	6.421
	없다	8.23±3.49	(.000)	21.21±8.07	(.000)	22.04±4.54	(.000)

표 4.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이행정도 간의 관계 (n=499)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도
지식	1	.273***	.197***
자기효능감		1	.359***
이행정도			1

*:p<.05, **:p<.01, ***:p<.001

표 5. 유방 자가검진의 이행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의 영향정도 (n=499)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Cum R ²	F	p
이행	지식	.040	.040	20.547	.000***
	자기효능감	.129	.169	73.452	.000***

*:p<.05, **:p<.01, ***:p<.001

4.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이행정도 간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이행정도 간의 상관성은 지식과 이행정도($r=.197, p=.000$), 자기효능감과 이행정도($r=.359, p=.000$), 지식과 자기효능감($r=.273, p=.000$),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표 4>.

연구대상자의 유방 자가검진의 이행에 대한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의 설명력을 검증하고, 어떤 변수가 더 강력한 예측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유방 자가검진의 이행에 대해서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은 4%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자기효능감은 12.9%의 설명력을 보여 지식보다 자기효능감이 이행에 대하여 더 강력한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은 유방 자가검진 이행에 대하여 전체 16.9%의 설명력을 보였다<표 5>.

IV. 논의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으로 측정된 점수는 18점 만점에 평균 8.79±3.28점이었고, 정답률은 48.9%를 보여, 최경옥(1994)의 연구에서의 18.1점/28점 만

점, 이은주(2002)의 연구에서의 11.2점/16점 만점, 김은경 등(2003)의 연구에서의 11.3점/16점 만점, 성미혜(2004)의 연구에서의 9.6점/16점 만점, 조홍숙(2004)의 연구에서의 10.7/18점 만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 연구들의 대상이 대부분 본 연구대상자와 비교하여 연령이 많고, 간호사이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여대생들의 유방암 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이 다른 연령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므로 유방암의 발병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그들에게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어머니나 언니, 여동생이 유방암에 걸린 여성은 다른 사람보다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유방의 크기가 큰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자가 검진을 할 때는 겨드랑 밑도 만진다’라는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높은 편이었지만, ‘40세 이상 여성은 6개월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을 해야 한다’, ‘최근에 젖꼭지가 들어간 것은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다’, ‘유방암을 검진 치료하는 곳은 외과이다’라는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낮은 편이었다. 이는 조홍숙(2004)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특별히 정답률이 낮은 문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유방 자가검진의 자기효능감은 60점 만점에 평균 24.97±10.46점(2.08±.87/5점)으로 측정되어 김은경 등(2003)의 연구에서의 3.10점/5점 만점보다는 낮고,

이태정(2007)의 연구에서의 24.3점/60점 만점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나는 다른 여성에게 유방 자가검진을 가르칠 수 있다’, ‘나는 유방 자가검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유방 자가검진을 할 때 손가락의 정확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의 문항은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여대생들은 유방 자가검진을 이행함에 있어 성공적으로 전 과정을 잘 해 낼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편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 중 지난 1년간 유방 자가검진을 한 번 이상 수행한 사람은 13.6%로 측정되어 최종숙 등(2001)의 연구에서의 37.8%, 이영희와 이은현(2001)의 연구에서의 32%, 조홍숙(2004)의 연구에서의 63.8%보다 상당히 낮은 수행률을 보였다. 또한 유방 자가검진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유방 자가검진 방법을 몰라서’,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귀찮아서’, ‘유방암에 걸릴 염려가 없어서’의 순으로 이유를 나타냈는데, 조홍숙(1994), 이상달 등(2001), 성미혜(2004), 이태정(2007)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20대인 여대생들은 대개 유방암에 대한 공포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가 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정확한 검진 방법을 알지 못하여 수행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가검진 수행에 있어 번거로움도 그 이유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추후 여대생을 위한 유방 자가검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정확한 기술 습득은 물론 흥미를 유발하여 즐겁게 검진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유방 자가검진을 한 번 이상 수행한 연구 대상자 중 이행 정도는 28점 만점에 평균 23.75±4.28점(3.39±.61/4점)으로 최경옥(1994)의 연구에서의 5.7점/20점 만점, 이은주(2002)의 연구에서의 평균 14.3점/28점 만점, 조홍숙(2004)의 연구에서의 14.3점/28점 만점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비록 수행률은 낮지만, 수행을 하는 여대생들은 동영상 자료가 풍부한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이행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젖꼭지를 짜서 분비물이 나오는 지 살펴보았다’, ‘누워서 유방의 안쪽과 바깥쪽을 촉진해 보았다’라는 문항은 높게 측정되었고, ‘유방에 무우리가 있는 지 만져보았다’, ‘유방의 크기를 관찰하였다’

라는 문항은 낮게 측정되었으므로 대중매체를 비롯한 교육자료 제공처에 대한 정확성과 관련하여 전문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대상자들이 올바른 건강증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유방암 관련 특성에 따른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이행 정도는 공통적으로 유방암에 대한 생각, 유방암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느낌, 유방암 환자 만난 경험, 유방 자가검진 교육 경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중 유방 자가검진의 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는 최경옥(1994), 이영희와 이은현(2001), 이은주(2002), 안혜정(2002), 조홍숙(200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유방암에 대한 심각성, 유익성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에 유방암 환자가 있을수록 자가검진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최종숙 등(2001)의 연구에서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이는 유방암의 직접적인 호발 연령이 아니어서 배제되고 있는 여대생 집단에게 유방암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유익성을 포함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대상자의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이행 정도 간의 상관성은 지식과 이행 정도($r=.197, p=.000$), 자기효능감과 이행 정도($r=.359, p=.000$), 지식과 자기효능감($r=.273, p=.000$)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이 높을수록 실천률이 높다는 이은주(2002), 최종숙 등(2001)의 연구와 장년기 여성의 유방 자가검진의 자기효능감 즉 확신성이 높을수록 이행 정도가 높다는 이영희와 이은주(200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유방 자가검진 지식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유방 자가검진의 이행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방 자가검진 이행에 대한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의 영향 정도에서 16.9%의 설명력을 보였고 이 중 지식은 4%, 자기효능감은 12.9%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유방 자가검진의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식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강력한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대상자에게 유방 자가검진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제공에 그쳐서는 안되고, 대상자에게 유방 자가검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 즉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여대생의 유방암 예방을 위해 유방자가검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이행 정도의 정확성을 추구하여, 유방자가검진의 성공적 수행과 지속적 실천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여대생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반영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효율적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경기지역 여대생의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 및 이행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기간은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였고, 연구대상은 경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520명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직접 동의한 자이다.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대상자가 설문지에 직접 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5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자료가 부실한 21부를 제외하고 499부를 연구 결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여대생의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수준과 수행률 및 자기효능감은 낮은 편이었고, 유방 자가검진 수행자 중 이행정도는 높은 편이었다. 유방암 관련 특성 중 유방암에 대한 생각, 유방암에 대한 위협성에 대한 느낌, 유방암 환자 만난 경험, 유방 자가검진 교육 경험에 따라 유방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도에 차이를 보였고,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이행정도 간의 상관성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유방 자가검진의 이행에 대한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은 16.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편의 추출하여 일부지역으로 한정 연구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전체 여대생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여대생에게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과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는 유방암에 대한 위협성, 심각성, 유방 자가검진의 유익성을 포함하여 여대생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유방

자가검진 수행을 위한 기술적 면도 충분히 강조하여 자가검진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유방 자가검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성 즉 자기효능감을 함께 증진시키는 내용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실제 프로그램 적용 후 그 효과를 검증할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기회가 적은 대학생들의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내 재학생을 위한 유방암 예방 관리와 관련된 보건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 실시 후 이해정도 및 실천정도를 확인하는 지속적인 추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책자 제작 및 배포, 지역사회 내 유방암 관련 행사 참여 등의 홍보를 통하여 여대생들의 유방암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하는 유방암의 예방은 물론 유방암 생존율의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선희, 전형진. 35세 이하 젊은 연령 유방암 환자의 예후 : 36세 이상 군과의 비교. 대한외과학회지 2007; 72(2): 101-106.
- 고석환. 젊은 여성의 유방암. 경희의학 2005; 21(1): 31-36.
- 국립암센터 국가암 정보센터 2007; <http://www.cancer.go.kr>
- 김미경. 유방암 자가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 김은경, 이해정, 안숙희, 정은순. 일부지역 간호사의 유방 자가검진 이행 예측요소. 대한간호학회지 2003; 33(7): 1047-1056.
- 민연기, 김남렬, 조성진, 김애리, 배정원, 구범환. 35세 이하 한국 여성 유방암 환자의 임상적 특징과 예후. 한국유방암학회지 2001; 4(1): 74-79.
- 성미혜. 일부 성인여성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검진 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4; 21(2): 187-198.
- 안혜정. 유방자가검진의 행위모델과 교육의 효과에 대한 분석. 성인간호학회지 2002; 14(1): 73-82.
- 유근영, 윤하정, 신애선, 신혜림. 유방암 조기검진의 한계. 암 예방학회지 2001; 6(3): 131-139.
- 이미화, 최인희. 여대생에게 실시한 지지교육이 유방 자가검진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과의 관계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001; 13(3): 397-408.

- 이상달, 박해린, 남석진, 양정현, 고영혜. 20대 여성의 유방암은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가? 한국유방암학회지 2001; 4(1): 63-67.
- 이영휘, 이은현. 장년기 여성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대한 예측 변수. 성인간호학회지 2001; 13(4): 551-559.
- 이영휘, 이은현, 신공범, 송미숙. 국내여성과 미국이주 한국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건강신념과 유방자가검진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2004; 34(2): 307-314.
- 이은주. 간호사들의 유방 자가검진 실천도 관련요인 [석사학위논문]. 대전: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2.
- 이태정. 유방암 조기검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대전: 을지의과대학교 대학원. 2007.
- 조홍숙. 중년 여성의 유방암 위험 정도와 유방 자가검진 지식 및 수행 여부와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남: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4.
- 최경옥. 간호사의 유방자가검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994; 6(1): 81-100.
- 최경옥. 유방자가검진 교육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교육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6.
- 최종숙, 박재용, 한창현. 일부 보건소 내소 여성의 유방자가검진과 유방암 검진의 관련요인.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1; 18(1): 61-78.
- 한미연, 정재원. 직장여성의 유방암 검진행위 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4; 12(4): 363-370.
- 허혜경, 박소미. 유방자가검진 행위단계에 따른 의사결정균형과 확신성 비교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004; 16(3): 493-500.
- Aspinall, V. An effective way to reduce mortality : screening for malignant breast disease. Professional nurse 1991; 6(5): 283-287.
- Assaf, A.R., Cummings, K.M., Graham, S., Mettlin, C., Marshall, J.R. Comparison of three methods of teaching women how to perform breast self-examination. Health Education Quarterly 1985; 12(3): 259-272.
- Bandura, A.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86.
- Champion. V.L. Instrument refinement for breast cancer screening behaviors. Nurs Res 1993; 42(3): 139-143.
- Devine, S.K., Frank, D.I. Nurse self-performing and teaching others breast self examination : impliance for advanced practice nurses. Clinical Excellent Nurse Practitioner 2000; 4(4): 216-23.
- Lerner, B.H. When statistics provide unsatisfying answers: Revisiting the breast self-examination controversy.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 2002; 166(2): 199-202.
- Lu, Z. J. Variables associated with breast self-examination among Chinese women. Cancer Nursing 1995; 18(1): 29-34.
- Parviainen, M. Breast cancer becomes more common : early diagnosis gives a better prognosis, Sairaanhoidaja 2003; 76(8): 26-7.
- Rosvold, E.D., Hjartaker, A., Bjertness, E., Lund, E. Breast self-examination and cervical cancer testing among Norwegian female physicians : A nation wide comparative study. Soc Sci Med 2001; 52(2): 249-258.

<ABSTRACT>

Knowledge, Self-Efficacy and Compliance on Breast Self Examination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Nam-Young Yang*†, Sun-Young Moon**

*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Shin Heung College*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knowledge, self-efficacy and compliance behavior on breast self examination(BSE) of female college students'.

Methods: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a convenient sample of 499 female college student. Surveyed data collected from May to August 2008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ean score of knowledge and self-efficacy concerning BSE was low, and compliance was high. The levels of knowledge, self-efficacy and compliance were differed significantly by experience of thinking about breast cancer, perceived susceptibility of breast cancer, experience of meeting with breast cancer patient, and educational experience of BSE.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knowledge and compliance, knowledge and self-efficacy. Knowledge and self-efficacy were a powerful predictor of compliance.

Conclusion: Focus on perceived knowledge, self-efficacy about breast self examination(BSE) of female college students may be beneficial to improve compliance, and should b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BSE education program.

Key words: Breast Self Examination, Knowledge, Compliance, Self-efficacy